



소리주보

연중 제32주일, 평신도 주일
2020. 11. 8. (가해) 제2240호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마태 25,6)



「현명하고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 히에로니무스 프랑켄, 1616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미술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평신도는 결코 평범(平凡)하지 않습니다!



교구 사목국장 | 이기수 비오 신부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가 중단되었던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사제평의회가 열렸습니다. 사제대표들만 참석하는 사제평의회와 교구 평신도위원회가 함께하는 합동회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구장이신 조환길 대주교님께서 평신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사제들만의 모임인 사제평의회에 평신도 위원회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이 모 인터넷 매체에 소개되어 평신도들과 함께하는 교회의 긍정적인 사목사례로 평가 받았습니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야기가 뉴스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평신도들을 참여시키지 않고 성직자들 중심으로 교회 살림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최근에 교황청에서 나온 문서가 우리말로 번역되었습니다.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공동합의성(Synodality)이 교회의 본질적 차원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공동합의성은 시노드(Synod)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하는데요, 하느님의 백성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평신도와 성직자가 함께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교회가 하느님의 백성임을 강조했습니다. 세례 받은 모든 이들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공동된 품위와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봉사 직무가 있지만, 그 사명은 하나이다.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으로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그분께 받았다. 또한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효과적으로 참여하여 하느님의 백성 전체의 사명에서 받은 자기 역할을 교회와 세상 안에서 수행한다.”(「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 2항)

평신도는 결코 평범(平凡)하지 않습니다! 평신도는 하느님 백성을 구성하는 성도(聖徒)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가 교회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제단과 평신도 위원회가 함께했던 합동회의와 같은 모습이 교회 안에 확산될 수 있기를 바라며, 평신도와 성직자 모두 깨어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마태 25,13) **궤산**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과 함께 제자리를 찾읍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천세 번째 맞이하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들에게 고유한 소명과 사명을 되새기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격려하는 날입니다.

우리 평신도에게 고유한 소명과 사명이란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속 안에서 누룩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회가 하느님 보시기에 좋게 바뀌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 세상 사람들을 참빛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명을 지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종종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 자녀로 삼으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지만 하면 그분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팬데믹이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운명공동체임을 자각하는 공동체적 삶을 살아야 하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삶을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마태 14,27) 하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의 도움에 힘입어 우리는 이 엄청난 상황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는 값진 유산들이 있습니다. 인간 존엄성, 공동성, 연대성, 보조성,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 재화의 보편적 목적과 같은 사회교리의 기본 원리들은 오늘날 여전히 적절하고 유효한 길잡이들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구는 설정 120주년을 바라보면서 2030년까지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교구장님께서 장기적인 사목 방향을 세우고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맞추어 우리 평신도들도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2021년은 하느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 가장 좋은 본보기이신 성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아 세속 안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불림 받은 우리 평신도들의 소명과 사명을 깊이 되새기고, 그 본분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평신도위원회

(※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더 이상 옛날처럼 전례에 쓸 빵과 포도주를 집에서 가져오지는 않을지라도’ (『미사 경본 총지침』 73항 참조)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가져와서 성찬 준비를 할 수 있나요?

현재 한국 교회에서는 누룩이나 다른 첨가물을 섞지 않은 순수한 밀로 만든 제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역시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수한 포도 열매로 빚은 것을 미사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찬례 때 사용하는 “빵은 순수한 밀가루로 빚고 새로 구워 부패의 위험이 전혀 없어야 한다. 포도주는 포도로 빚은 천연의 것으로 부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교회법 제924조)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가 개인적으로 가져온 빵과 포도주를 성체 축성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미사 경본 총지침』 ‘제대와 예물 준비’ 부분에서 언급된 내용은 예물 봉헌의 역사적 전통과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최후의 만찬 때, 그 시대 누구나 먹고 마시던 빵과 포도주로 성체성사를 세우셨기에 교회 공동체는 빵과 포도주를 성체성사를 이를 음식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던 빵과 포도주를 가져와 미사 예물로 바쳤습니다. 세월이 지나 영성체를 하는 신자 수가 많아 지자 빵과 포도주 대신 지금과 같은 제병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미사 때 성작에 포도주를 붓고 물을 조금 섞는 것과 성체의 한 부분을 떼어 성작 안에 넣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포도주와 물을 섞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일치를 상징하며, 성체와 성혈을 섞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루어졌음을 상징합니다.

사제는 포도주가 담긴 성작에 물을 조금 부으며 “이 물과 술이 하나 되듯이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창으로 찢린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을(요한 19,34 참조) 상징하는 포도주와 물을 섞는 행위는 하느님이시며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일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사제는 평화의 인사를 나눈 다음, 성찬의 빵을 쪼개어 성작에 한 부분을 넣을 때 “여기 하나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이를 받아 모시는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예식은 구원의 업적에서 주님의 몸과 피의 일치, 곧 살아 계시고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하나 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미사 경본 총지침』, 83항 참조)

출처 :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편찬 『미사 전례』



최필공 토마스 (1744~1801년)

1744년 한양의 의원 집안에서 태어난 최필공(崔必恭) 토마스는 1790년에 사촌 동생인 최필제 베드로와 함께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그의 나이 46세 때였다. 그의 조상들 중에는 조정에서 의관으로 봉직한 이들도 있었지만, 토마스는 관직도 없는 데다가 가난하여 그때까지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품만은 솔직하고 너그러웠다.

천주교에 입교하자마자 최 토마스는 교리를 실천하는 데 큰 열성을 보였다. 그는 공공연하게 교리를 전파하고 다녔으며, 이로 인해 박해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다.

1791년 신해박해가 일어나자 최 토마스는 몇몇 지도층 신자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이때 함께 체포된 동료들은 대부분 배교하고 석방되었지만, 그는 목석과 같이 신앙을 고수하였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정조 임금 은 ‘어떻게 해서든 그에게 천주교 신앙을 버리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박해자들은 온갖 수단을 써서 최 토마스를 배교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사촌 동생 최필제 베드로는 거짓으로 최 토마스의 자백서를 써서 박해자들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다. 또 정조 임금은 관리들에게 명하여 ‘최필공을 옥에 가두되 특별히 보살피 주도록 하라’고까지 하였다. 결국 그는 이러한 유혹에 굴복하고 말았다.

석방된 뒤 최 토마스는 평안도 지방의 심약(조정에 올리는 약재를 검사하는 직책)에 임명되었고 임금의 도움으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천주 신앙에 대한 믿음으로 3년 뒤 심약 자리를 사임하고는 한양으로 돌아와 다시 열심히 교리를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또 1794년 말 조선에 입국한 주문모 야고보 신부를 찾아가 성사를 받고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였다.

최 토마스는 1799년 8월에 다시 체포되어 문초를 받게 되었다. 정조 임금은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되돌려 보려고 하였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러자 관리들이 최 토마스를 참수형에 처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임금은 이를 거부하고 그를 석방해 주도록 하였다.

1801년의 신유박해가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 음력 12월 17일, 다시 체포된 최 토마스는 이전의 행실 때문에 누구보다 더 혹독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는 처음부터 “천주교 신앙에 대한 믿음을 바꿀 생각이 조금도 없다.”라고 단언하였다.

얼마 안 되어 최 토마스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는 이미 나이가 많은 데다가 형벌과 옥고로 인해 거의 의식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사형장에 이르자 그의 얼굴에는 기쁨의 빛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첫 번째 칼날이 그의 목을 비껴가면서 피가 손으로 흐르자 최필공 토마스는 이것을 보면서 “보배로운 피!”라고 외쳤다. 이때가 1801년 4월 8일(음력 2월 26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57세였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오늘의 전례

제 1 독 서	지혜 6,12-16	제 2 독 서	1테살 4,13-18	복 음	마태 25,1-13.
화 답 송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 알렐루야.				
영 성 체 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서로가 서로에게 향기가 되어~

예쁜 엽서 & 성탄 카드 전시회

문화홍보국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게 지내온 모든 분들께 격려와 위로,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나누고자 코로나 극복 『예쁜 엽서&성탄카드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향기가 되어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가오는 연말과 성탄의 기쁨을 함께할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제 : ① 코로나19로 지친 모든 분들에 대한 응원과 격려, 위로와 희망이 담긴 메시지
② 아기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성탄 카드

자격 : 대구대교구에 교적을 둔 전 신자

형태 : 일반 엽서나 카드 형태의 손 글씨와 손 그림이 포함된 수작업 창작물
사진 및 포토샵, 일러스트 등 그래픽 작업을 거친 디지털작품은 불가

접수기간 : 11.8(일) ~ 27(금) / **전시기간 :** 12.14(월) ~ 25(금) 교구청 일대

방법 : 우편(마감일 소인 유효) 및 방문 접수(대구시 중구 남산로4길 112 천주교대구대교구청 문화홍보국)

문의 : 교구 문화홍보국, (053)250-3046~9

※ 출품해 주신 작품 가운데 우수작은 별도로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미사 안내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1월 9일(월) 10:30 범어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1월 9일(월) 11:00 죽도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1월 9일(월) 11:00 계산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11월 10일(화) 11:30 계산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1월 9일(월) 11:00 황성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1월 11일(수) 10:00 평화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1월 9일(월) 11:00 신평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11월 14일(토) 10:00 월성성당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성소 상담

대상: 20~30대 성소에 관심 있는 분
상담: 필요시 언제나 방문 가능
문의: (010)3375-4408
carmeldg@hanmail.net

산내 치유 피정(정원 10명)

일시: 11.17(화) 14:00~18(수) 18:00
장소: 효령하늘집 / 피정비: 4만원
문의: 이곡성당, (054)382-0091

교육 | 모집 | 기타

제대꽃꽂이 봉사자를 위한

아카데미 제13기생 모집

개강: 11.24(화)

문의: 전례꽃꽂이연구회, (010)2780-4535

35회 글로벌 온앤오프 국내 영어캠프

일시: 2021.1.2(토)~30(토) 4주
설명회: 11.14(토) 14:00

대상: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3학년
주최: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2021년 제27차 해외선교사교육

일시: 2021.1.11(월)~2,4(목)
장소: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선교센터
대상: 해외선교를 준비하는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양성담당자
문의: 해외선교사교육협의회, (02)953-0613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자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신청: 수시 가능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문의: (031)360-7635 / (010)7470-7966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 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전인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약전화: 670-5959

군위군·경상북도·매일신문이 마련한 고(故) 김수환 추기경 추모 뮤지컬 **밥처럼 용기처럼**

일시 : 11.21(토) 1일 2회 공연 / (1회) 14:00 (2회) 17:00 / 장소 : 군위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

관람료 : 무료(사전접수 필수, 현장접수 불가) / 문의·문자 접수 : 010-3362-5616 (예: ○○성당, 10인, 1회 공연)

* 이 공연은 '좌석 간 거리두기'로 진행됩니다.

일월매트총판 | 온수매트
한일의료기 | 게르마늄매트
소금좌욕기 | 전자제품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010-9804-8008
유통단지 45 전차관 ☎ 2390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기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봉산문화거리 입구 미래셋증권대우 9층
☎ (053)257-8875
www.kisaneye.co.kr

달서점
와이덱스 보청기
前) 대구복음보청기 14년 지점장
덴마크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취급
즉석 A/S, 청능사/사회복지사
류(다니엘) 053)554-0044
2호선 감삼역(서남시장) 2번 출구 앞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 전문
경대병원 응급실 건너편
T. (053)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족부전문정형외과의원
(밤·발목·스포츠 질환)
만족정형외과
원장 최재혁(요한)
☎ 255-8119
3호선 범물역 2번출구 (농협방향 20m)

35년 경험과 기도로 치료하는
Since 1985
달성피부과
아토피·만성피부
보톡스·탈모
손재경(다미아노) · 김인주(베지나)
DALSUNG
053)566-4333, 2호선 두류역 2번출구

리스토리결혼정보
국내 / 국제 결혼 전문
안동 MBC, 아시아뉴스통신 방송 다수출연
21년 전통 ♥ 성혼시까지 맞선
대표 이현숙 수신나 (교육학 박사)
M. 010.6571.3385
T. 053.586.3220

SM **수맥홍침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중
☎ 1588-5335

위령성월 전대사 공지

교황청 내사원 교령에 따라 11월 한 달간 위령성월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김필곤(발라바) 신부 1928년 11월 8일
- 박춘택(베드로) 신부 2005년 11월 10일

행사 | 모임

11월 예비신학생 모임(중1~고2)

일시: 11.15(일) 14:00
 1~3대리구: 남산동 대신학원
 4대리구: 성동성당, 죽도성당
 5대리구: 5대리구청, 평화성당

교육 | 모집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과정 모집

접수: 11.2(월)~13(금)
 문의: 660-5111
<http://www.cu.ac.kr>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자유대학원 인문학석사학위 신입생 모집

접수: 11.2~13 / 월, 목 야간 강의 대상: 학사학위 소지자(전공 무관)
 혜택: 학생 전원 50% 장학금
 문의: 660-5252~4 / (010)6563-0409

2021 전기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접수: 11.2(월)~13(금)
 모집: 일반, 교육, 특수대학원
 문의: 850-3582(일반), 850-3508(교육), 660-5252~4(특수)
<http://www.cu.ac.kr>

효성여고 2021학년도 입학설명회

1차: 11.14(토) 14:00
 2차: 11.25(수) 19:00
 장소: 효성여고 다솜관
 신청: 홈페이지(선착순) / 문의: 235-7012
 건학이념, 교육과정, 입시결과, 기숙사 등

대건고 2021학년도 입학설명회

일시: 11.21(토) 14:00
 장소: 대건고등학교
 문의: 입학홍보실, 235-4560
 기회균등전형(국민기초, 차상위 등) 입학시 전원 장학금 지급, 기숙사비 등 학비 지원

시편 성가 연주

일시: 11.15(일) 15:00
 강사: 김정선 수녀 / 회비: 1만원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채용 | 안내

범어대상당 전기·설비 유지 유경험자 채용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본당주임신부 추천서
 근무지: 범어대상당
 문의: 범어대상당, 790-1300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간호사 채용

위치: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440(읍내동)
 문의: 간호과, 320-2750
<http://www.tcmch.co.kr>

대구가톨릭치매센터 요양보호사 채용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58세 이하
 문의: 616-2141 / 615-2141

백합식품 기간제 직원 채용(6개월)

인원: 1명(생산직)
 대상: 20대~40대
 상세: 전화 문의
 서류: 이메일 spcfood@hanmail.net
 문의: (010)9484-2037

2021년 대구주보 광고 신청 안내

- 순번추첨결과 : 11.19(목) 대구주보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문자발송
- 주보광고접수 : 11.26(목), 대건관 2층 가정복음화국 회의실

※ 광고비 전액 계좌이체 (광고접수일부부터 익일까지)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053)250-3048~9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과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010-3530-7700
 010-3817-0111
 양호진 요셉, 장효선 데보라

신랑각시결혼
 전문작·초혼·재혼·만혼
 의사, 약사, 교사, 공무원 환영
 이원교(요안나) | 27년 경력
 053)471-0707 | 010-2817-8888
<http://www.sk1004.co.kr>
 남구 봉덕동 영대병원 사거리

36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보조금 지원 무료 보청기
 053)257-8500 / 253-7476
 방인수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광병원 사이 지하도 입구

U&I 유엔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할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경임 (아네스)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복현연합내과
 BOKHYUN UNION INTERNAL MEDICINE
 건강보험공단 검진(5대암) 위·대장 내시경·용종절제
 고혈압·당뇨관리 우수 의뢰기관 선정
 전문의·의학박사 | 최희만(레오), 이서우(D.안드레아)
 복현오거리 신한은행 옆 건물 2-5층 T. 053 943 9380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정 역임
 신경정신과 전문의/의학박사 대한수면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대한생물치료를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공전라번더 맞은편)
 ☎ 053)942-8822

가람소방방재(주)
 ◆ 소방시설점검 ◆ 소방안전관리대행
 ◆ 종합정밀점검 ◆ 소방관련기술교육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전문공사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이현씨노비츠타워 B108호
 대표전화 053)600-9485~9 HP 010-4245-0507
 대표이사 소방시설관리사 김진석(스테파노)